

전후 희곡문학과 실존에 대한 갈등

-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과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

김리안*

|| 차례 ||

- I. 머리말
- II. 전후세대의 실존의식과 무대배경
- III. 섹슈얼리티와 극중인물의 실존적 갈등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인간존엄은 신체의 자유에서 비롯한다. 특히 섹슈얼리티는 자아정체성의 근원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이란 미명 아래 장기집권을 위하여 사상과 섹슈얼리티를 억압하였다. 이로써 인간존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라 선과 악으로 이분화되고, 섹슈얼리티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근거로 재단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정치적·경제적 토대로 한 정권은 오히려 인간 내면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순을 낳았다.

전후세대는 이념전쟁의 비극으로 인해 삶이 폐허로 변하고 공동체가 해체되었음에도 전후 사회가 과거의 가치체계와 물신(物神)으로 양립하며 인간을 소외하는 현실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인간이 본래의 성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인간존재의 정체성을 내밀히 탐구하였다. 이때 섹슈얼리티는 자기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해방의 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존재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전후세대의 희곡인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현대문학』,1958.12.)과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현대문학』,1959.10.)는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욕망조차도 보편적 사회규범의 범위 내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억압적 현실에 반발하여 성적 일탈을 극화하였다. 이 논문은 두 희곡을 바탕으로 전후세대의 실존의식을 담은 무대배경과 극중인물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실존에 대한 갈등이 불륜으로 치닫되고 마는 당시의 현실을 조명하여 전후세대의 시대정신을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 실존주의, 전후세대, 섹슈얼리티, 자아정체성, 불륜, 자기해방

1. 머리말

인간존엄은 신체의 자유에서 비롯한다.¹⁾ 그런 까닭에 ‘섹슈얼리티’²⁾는 인간존재의 신체 안에서 욕망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본질이 되며, 자아정체성의 근원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사회는 섹슈얼리티를 생식(生殖)에 한정하고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며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자유로운 본능 추구는

1) 김재기, 『철학, 섹슈얼리티에 말을 건네다』, 향연, 2014, p.210.

2) 섹슈얼리티는 첫째 일부일처제·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독신제와 같은 성적 행위와 사회적 관행들, 둘째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 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성적 경향성, 셋째 성 정체성이나 성적 욕망, 넷째 성 정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필자는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몸을 통해 인식되는 실존에 대한 근원적 욕망으로서, 성을 토대로 자아실현에 이르기 위한 주체적인 삶의 핵심 동력으로 정의한다. 즉 타자와 구별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지속성과 배치되므로 구속과 억압의 대상이어야만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 역시 국가재건이란 미명 아래 반공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가부장제를 표방하였는데, ‘동양의 전통적 예의지국 백성이 되기 위해 유교적 교훈을 지켜나갈 것’을 생활 태도로 명시하였다.³⁾ 사상과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일은 장기집권을 달성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⁴⁾ 이로써 인간존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라 선과 악으로 이분화되고, 섹슈얼리티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근거로 재단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정치적·경제적 토대로 한 정권은 오히려 인간 내면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순을 낳았다.

당시 미국은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에 선진 문명국이라는 이미지를 내재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선전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⁵⁾ 이때 대중문화는 미국적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선전하는 유용한 매체로 활용되었다. 주한미군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팝송과 재즈는 댄스의 선풍을 일으켰고, 극장가를 장악한 할리우드 영화는 성 해방과 물질문명을 동경하게 하는 등 ‘아메리카니즘’⁶⁾을 잉태하였다. 민중은 피엑스에서 나온 꿀꿀

3) 김리안, 『1950년대 오학영 희곡의 실존의식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국어교육학과, 2017, pp.8-9.

4)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를 강화하고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5) 미 공보원과 전후 원조기관들은 잡지를 발행하거나 영화를 직접 제작해 지방 곳곳을 돌며 문화선전을 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표상이자 문명의 귀감으로 자리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하나, 「미국화와 욕망하는 사회」,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2016, pp.144-145.

6) 아메리카니즘의 사전적 의미는 미국에 대한 주요한 표상, 즉 미국적인 이상 사회를 이룩하려는 열망을 뜻한다. 미국식 가치와 문화가 거대한 위상으로 작동하면서 반미적인 언행을 할 권리는 금지하고, 미국을 선망하게 하면서 우리 전통과 현실은 부정하여 배척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한다.

이죽을 먹는 와중에도 영화 속 삶과 같이 양옥집에서 양장 차림을 하고 양식을 먹으며 낭만적인 로맨스와 함께 전시회나 음악회를 즐기는 도시 중산층을 꿈꾸었다.

이념전쟁의 비극으로 인해 삶이 폐허로 변하고 공동체가 해체되었음에도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근거한 사회가 오히려 미국의 문명과 문화를 선망하도록 부채질하는 현 상황에서 '전후세대'⁷⁾는 부조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전후 사회가 과거의 가치체계와 물신(物神)으로 양립하며 인간을 소외하는 현실에 반기를 들었다. 때마침 전후사회에 팽배한 실존주의는 인간이 본래의 성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향과 인간존재의 정체성을 내밀히 탐구하게 하였다.

이때 섹슈얼리티는 '자기해방의 한 방식'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존재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전후세대의 희곡인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⁹⁾과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¹⁰⁾는 섹슈얼리티를 통하여 부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존재의

7) 전후세대 작가란 1950년대 중후반에 신춘문예나 문예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을 뜻한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청년기에 겪은 탓에 폐허와 허무 속에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기성세대와 변별된 의식을 추구하였다.

8) 송기정, 「광기 소유욕 섹슈얼리티」, 『성과 젠더 그리고 문학』, 호영, 2000, p.68.

9) 본 작품은 1958년 12월호 『현대문학』 지면 133쪽에서 150쪽에 수록되었다. 작가 김상민은 1923년 함북 경흥에서 출생했다. 1957년 『현대문학』에 단막극 「폭음(爆音)」, 「비오는 성좌(星座)」로 추천을 받고 문단에 데뷔하였다. 주로 깔끔하고 날카로운 묘사로 현대사회가 지닌 모순과 그 틈바구니에 끼인 인간의 고뇌를 지적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피동적이고 무기력한 면은 극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출판부, 2004, p.119.

10) 본 작품은 1959년 10월호 『현대문학』 지면 107쪽에서 129쪽에 수록되었다. 작가 오학영은 1937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1958년 『현대문학』에 희곡 「생명은 합창처럼」이 추천됨으로써 극작에 데뷔하였다. 그는 전쟁이 인간의 의식구조에 미친 가

실존 문제를 고뇌하였는데, 특히 당시 극계에서도 파격적인 성적 일탈을 소재로 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명진¹¹⁾은 전후세대는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실존주의 세계관을 표방하며 부조리한 세상에 내던져진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희곡 작품이 많이 등장했는데, 특히 ‘몸’을 통해 실존적 극한 상태를 구현했다고 보았다. 이때 몸은 거부·배제·왜곡·협오의 대상인 성적 욕망에 포박된 형태로 형상화되며, 결국 육욕과 관능으로 기존의 성 윤리에서 이탈할 뿐 아니라 끝내 근친상간의 금기까지 균열을 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 속 인물들은 예술지상주의에 몰입하거나 지극히 사적(私的)인 내면에 침잠하고 마는 한계를 드러내며 계몽 등의 형태로 굴절되는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홍창수¹²⁾는 1950년대에 멜로드라마적인 특성을 지닌 애정 소재의 희곡이 많이 등장한 이유를 대중문화의 양상을 반영한 구조적·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남녀의 비정상적 애정 관계나 근친상간과 같은 애정의 반윤리성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륜적 소재는 전쟁으로 인한 가족 해체에 원인이 있기도 했지만, 서양에서 유입

혹한 정신적 상처를 예리하게 묘사해 나간 대표적인 전후세대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950년대 신인극작가들이 대부분 사실주의 무대기법으로 전후 현실 세태를 다각도로 드러낸 데 비하여, 오학영은 희곡의 대상을 실존적 의식 차원에서 표현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582.

11) 박명진, 「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 오학영과 장용학의 희곡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9집, 우리문화회, 2013, pp.279-316.

12) 홍창수, 「전후세대 애정 소재 희곡의 반윤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 제10집, 한국연극학회, 1998, pp.47-69.

된 삼류 애정 영화나 미국 연극의 유입이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애정의 윤리를 완전히 주체화하지 못한 채 주인공의 인식이 애욕과 갈등 문제만 부각시킬 뿐이며, 징벌·사고·자살과 같은 결말로 귀결되고 미는 작가의식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김옥란¹³⁾은 전후 희곡에서 가족 구성이 결손 가족의 형태를 띠는데 주로 가장의 부재 때문에 가족 해체 양상이 나타나며, 전쟁 이전의 가족을 유지하던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심은 살부(殺父)를 통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50년대의 병적 현실을 보여주는 징후들로 집의 이미지를 폐가·무덤·감옥 같은 것으로 묘사한 이유는 사회로 나가는 출구가 철저히 폐쇄되었음을 상징하며, 가족 범주에서 근친상간이나 불륜을 신세대의 자살이나 정신이상처럼 극단적 결말로 끝낸 이유는 기존의 권위를 철저히 부정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 폐쇄적인 세계 속으로 파멸해가는 비극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성적 일탈’이 전후 희곡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으로써 전후세대가 당시를 진단하거나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가 계몽으로 굴절되거나, 윤리의식을 주체화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사회구조 속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는 일 자체가 불륜과 같은 일탈 행위로 기형화된 전후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전후세대는 전통적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가족 제도 대 미국의 퇴폐

13) 김옥란,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전후세대의 현실인식-가족해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pp.23-53.

적 대중문화와 성 해방의 간극에서 인간존재가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근원적 욕망조차도 보편적 사회규범의 범위 내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재단되어야 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반발로 확장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며 인간은 자기 삶을 통해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실존주의를 토대로 섹슈얼리티가 자기해방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오히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무의식에 주입된 기존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보편의 틀을 환기하며 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었다. 전후세대 극작가들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극화하기 위해 ‘성적 일탈’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두 희곡을 바탕으로 전후세대의 실존의식을 담은 무대배경과 극중인물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실존에 대한 갈등이 성적 일탈이라는 불륜으로 기형화되어 좌절하고 마는 당시의 현실을 조명하고, 인간의 본질과 정체를 고뇌한 전후세대의 시대정신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전후세대의 실존의식과 무대배경

전후사회에서 가족관계 모티프는 문단 전반을 지배하는 소재였다. 기성세대 극작가들은 주로 전쟁의 참화로 상처 입은 가족과 혈연관계를 통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려는 목적이었다. 물론 사실주의에 근거한 반공극은 전란의 경험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어 사회고발의 측면에서 보면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반공이라는 목적성 때문

에 선악으로 이분화된 인물을 형상화하여 지나치게 경직된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개인의 다양한 심리보다는 주로 공산체제의 반인도적 행각을 폭로하는 데 집중하여 문학성이 반감되는 한계를 지닌다.

전후세대는 이와 같은 목적극을 접어두고 기성세대와 변별의식을 가지며 ‘전통단절’¹⁴⁾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인간이 놓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작시(作詩)의 시작이며, 지난날의 인간 조건과 오늘날의 인간 조건을 살펴 문학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문학하는 마음’이라고 여겼다.¹⁵⁾ 현실 상황을 살폈을 때 국가권력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주입한 정치적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여 장기 집권의 야욕을 달성하는 일에 심혈을 쏟고 있었다. 이념전쟁의 도구로써 소모하였던 인간존재를 이번에는 국가재건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사물화하려는 상황이었다.

현실의 구속과 억압으로 고통이 극대화될 때 오히려 근원적인 욕망을 탐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실존에 대하여 고뇌하는 것은 ‘자유를 선고받은 인간존재’¹⁶⁾의 숙명이다. 이때 실존적 갈등이 섹슈얼리티와 관련되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무엇보다도 ‘자아정체성’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¹⁷⁾ 성이야말로 각 개인의 신체를 매개로

14) 전통단절은 전후세대가 한국전쟁 이전의 세대와 그 세대들의 세계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변별의식을 지닌다는 의미이며, 이들의 대표적인 세계관 중 하나가 실존주의였다. 박명진, 앞의 논문, p.281.

15) 이어령, 『저항의 문학』, 기린원, 1986, p.23.

16)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존재는 자칫 미끄러져 절벽 아래의 심연 속에 떨어질 만큼 위험한 현실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자유를 선고받았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자유란 공포일 수밖에 없다. 김리안, 앞의 논문, pp.16-17.

17) 송기정, 「광기 소유욕 섹슈얼리티」, 『성과 젠더 그리고 문학』, 호영, 2000, p.67.

욕망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원적이어서, 모든 권력은 신체를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¹⁸⁾ 특히 전통적 가부장의 권위주의는 가족공동체 안에서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가 결박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욕망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강력한 구속에 얽매일수록 저항이 강렬해지듯 경직된 사회에서 욕망이 분출하는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무대배경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
<p>때 : 성하(盛夏) 곳 : 항도(港都) 벼랑을 깎아 세운 육중한 2층 건물이 저만치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우거진 숲이 있어 그 숲 새로 정자(亭子)가 섰고 거기에 등의자 원탁 등이 놓여져서 마치맛은 휴식처로 꾸며진다. 멀리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이 아련히 드러나 보이는 가운데 가끔씩 항도의 소음이 밀려온다.</p> <p>1장(一場) 바람 한 점 없는 해지기 전 한 때, 무대는 숲의 푸른 것과 건물의 붉은 것과 수평선 위에 서성거리는 구름의 흰 것들이 용케 일러서 화사한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황혼을 재촉하듯 한 가닥 뱃고동 소리가 특하게 울려오는 가운데 막(幕)</p> <p>2장(二場) 해진 후, 달밤. 극이 진전함에 따라 차츰 조각구름이 뭉개 돌면서 나중에는 전광(電光)</p>	<p>때 : 염열(炎熱)성하(盛夏)의 어느 날 곳 : 서울 우기(雨期)가 지나고 지금은 폭양(暴陽)이 내리 쪼이는 복(伏)허리. 날카로운 햇빛이 눈부시게 맑은 서울의 카바레, 바, 다방 등 유락(遊樂)장이 즐비한 거리. 앞뒤에 고층 건물 잠자듯 직립해 있는 그 한 구석에 낮은 예식 가옥이 하나. 무대는 이 가옥의 내부거실(居室)이 구성중심이 되고, 이 가옥 뒤에 말쑥한 카바레 ‘향미사(響尾蛇)’가 있다. 가옥내부의 장치는 예식 주택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다미 방과 흡사하다. 거기 2인용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앞에 화장대와 거울이 있다. <…> 원편에 주방과 목욕실이 있고 문 옆에 검은 항걸을 돌려 놓은 현순 친부(親父)의 사진이 걸려 있다. <…> 이 퇴락(頹落)한 집 밖을 나서면 적은 개천이 있고, 거기 낮고 퇴색(褪色)한 폐교(廢橋)가 있다. 그 앞에 표목(標木)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붉은 팽키로 아주 서늘게</p>

18) 김재기, 앞의 책, p.210.

<p>과 더불어 굵은 빗방울이 똑똑 뿌리게 된다. 파도소리 설레는 가운데 명전(明轉), 불이 켜진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온다. 옥이 바다에서 헤엄치고 돌아온다.</p>	<p>‘주의, 건너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다. 이 개천과 왜식가옥은 불길한 전언(傳言)이나 지니듯 우울한 경색(景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카바레 ‘함미샤’는 깨끗한 벽돌 건물이다. 그 벽에 커다란 포스터 하나. ‘정열의 가수 특별출연’이라 후색 타이틀 밑에 적색 조명을 받은 어느 여인의 풍만한 나신(裸身)이 그려져 있다. 그 여인은 <…> 백치(白痴)와 같은 표정이 자못 선정적(煽情的)이다.</p> <p>이 카바레에서 간헐적으로 재즈 음악이 들려온다. 이것은 극 전체의 사건과 분위기를 쾌적(快適)한 훌륭한 효과가 된다.</p>
---	--

<표 1>은 <벼랑에 선 집>과 <심연의 다리>의 배경을 비교한 것이다. 두 희곡은 모두 성하(盛夏)를 계절적 배경으로 한다. 땀별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한여름을 시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여름은 이성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욕망과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숙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몸을 감싸고 있는 한 조각 옷조차 벗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이 계절은 극중 인물들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고조·분출시키게 되는 필연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기존 가치관의 억압이 강력하게 느껴질수록 개인의 실존에 대한 갈망은 열렬해지는 것이다.

또한 배경이 <벼랑에 선 집>의 경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심연의 다리>의 경우는 낮은 다리 너머 건너지 말아야 할 미지의 공간과 접해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존재자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의사소통하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¹⁹⁾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대를

19)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왕사영 역, 청아출판사, 1998, 25쪽.

둘러싼 바다와 미지의 세계는 인간이 무(無)에서부터 욕망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지향한 바대로 기획한 외부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희곡의 무대에서 전통적인 이미지가 소멸하거나 쇠락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전통단절을 선언한 전후세대의 의식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벼랑에 선 집>의 공간은 벼랑을 깎아 세운 2층 건물과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의 정자이다. 정자 앞에는 원탁과 등의자가 놓여 있어서 이국의 휴식처 같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심연의 다리>도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직립해 있는 공간의 한구석에 놓인 낡은 왜식가옥이 배경이다. 창문 너머로 선정적인 여인의 나신을 포스터로 내건 카바레가 말쑥하게 썼고 미국식 재즈가 새어 나오며 전통의 것을 압도하고 있다. 집이란 가족이 모여 살아가는 곳인데 이국의 문화 속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해체된 점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위태롭다. 인간존재가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본질을 부인하고 욕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순간 보금자리였던 가정은 파편화되어 해체된다.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과 직면하여 기투(企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르트르는 사형수와 같이 자유를 선고받은 것과 같다고 말했던 것이다. 결국 극중인물들은 실제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스스로 기획하여 선택한 것들로 채워진 무대공간의 괴리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게 되고, 자아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희곡의 무대는 화려하고 원색적인 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우울과 고뇌를 감출 수 없다. <벼랑에 선 집>은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이 아련히 드러나 보이며 석양과 흰구름과 푸른 숲이 얽혀 화사해 보이지만, 황혼을 재촉하는 분위기이며 밤이 오면 전광(電光)과 더불어 빗방울이 떨어진다. <심연의 다리>는 작가가 아예 ‘이 개천과 왜식가옥은 불길한 전언(傳言)이나 지니듯 우울한 경색(景色)을 이루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분위기를 제시할 뿐 아니라 무대의 색채가 욕망과 금기를 상징하는 적색과 공포, 죽음, 좌절, 고뇌를 상징하는 흑색으로 대비되어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희곡이 설정한 무대는 극중인물들이 선택한 욕망이 금계(禁界)를 넘어서서 불륜으로 기형화되어, 필연적으로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심연에 빠질 것임을 복선하고 있는 것이다.

III. 섹슈얼리티와 극중인물의 실존적 갈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은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재단되어 통제되어왔다. 인류는 섹슈얼리티를 생식의 기능에 예속시킴으로써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위계를 절대화하였는데, 그 결과 강력한 부권제를 확립하여 ‘남근=혈통=재산=권위와 지위=질서’로 압축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²⁰⁾ 개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했음에도 오히려 질서를 지속하는 일이 윤리·도덕적으로 인간답고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을 형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존에 대한 욕망은 부정되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이 사회가 구축한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는데 반하여 무의식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억압 과정을 겪은 정신

20) 김재기, 앞의 책, p.147.

의 영역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무의식에 억압한 욕망은 무더위에 배어나는 땀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성적 일탈’은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²¹⁾ 문제는 가족공동체 안에서 섹슈얼리티가 충돌하는 일은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때 무의식의 욕망이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아 발생한 불안은 자기 검열의 방식으로써 꿈으로 발현한다.

<표 2> 꿈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
<p>옥 : 너 얼마 꿈 어떤 걸 꿰니? 죽은 사람 꿈은 불길이라는데.</p> <p>영 : 오빠가 미국 유학하는 것까지 죄 알구 계셨어. 한번 만나 봤으면 그러시는데. 그 동안 집에 와 있다가 내일 떠나는 거라구 그랬드니 - 그럼 오늘 밤 꿈으루 찾아가마, 다른꿈 꾸지말구 기다리라구 그래 - 그러셨어.</p>	<p>현순 : (겉에 가서 가만히) 왜 그래? 요즘 당신 신경병이 몹시 악화된 것 같애. (사이) 아버지 꿈을 꾸웠오?</p> <p>무경 : 네. 저 다리를 건느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끝내는 다리 이편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셔요.</p> <p>현순 : (신기한 듯) 아버지 생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 집을 아끼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어느듯 이집에 깊은 정이 들었어.</p>

<표 2>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두 희곡은 모두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금기를 환기한다. 금기란 사회 구조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형화된 가치관으로써 꿈은 이를 상기시켜 욕망을 경계하고자 한다. 꿈에 전통세대가 등장하여 금기를 강조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해칠 만큼 욕망이 강렬하다는 의미가 된다.

<벼랑에 선 집>에서는 영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 옥에게 다른 꿈을 꾸지 말라고 전언한다. 옥은 동생 영의 피아노 교사이자 가정부인 연옥

21) 조셉 브리스투우, 『섹슈얼리티』, 이연정·공선희 역, 한나래, 2000, p.99.

을 사랑하는데, 그녀는 아버지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옥의 연옥에 대한 연정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므로 부권 사회에서는 절대적 금기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꿈을 통해 엄마로 현신한 자의 식이 다른 꿈은 꾸지 말라며 윤리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의 꿈에 엄마가 현신하여 옥을 향한 금기를 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금기가 특정 인물뿐 아니라 전 사회 범위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십연의 다리>에서는 현순과 무경은 부부인데, 무경은 현순의 남동생인 현웅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현순의 아버지가 며느리인 무경의 꿈에 등장하여 다리를 건너가지 말고 다리 이편에서 살라고 한다. 다리 이편은 인물들이 사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집약된 낡은 집이 있는 곳이다. 이미 파편화되었더라도 가족이란 집이라는 공간에서 절대적인 위계에 따라 공존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꿈은 시동생 현웅과 무경의 욕정에 대한 질책이자 남편 현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억압이며, 욕망과 규범의 충돌은 끝내 무경의 신경증²²⁾으로 분출되고 만다. 여기서도 무경의 꿈이 가장인 현순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버지의 말씀이 되새김질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꿈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가치관의 현신이다. 그런데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을 자유로운

22) 여자는 오직 남성의 욕망을 인식함으로써만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감안할 때 프로이트가 주장한 수동적인 여성성이라는 관념은 생리적-성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기정, 「광기 소유욕 섹슈얼리티」, 『성과 젠더 그리고 문학』, 호영, 2000, p.70.

선택에 의한 행동 주체로 정의한다면 섹슈얼리티는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극중인물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분위기 역시 이들의 욕망을 더욱 부추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점철된 전후현실에서 공포일 뿐이다. 개인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윤리·도덕적 잣대가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평가하며 불안을 야기하고, 설사 자유의지대로 스스로의 본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결국 실존에 대한 갈등은 불륜으로 전락하며 극중인물의 삶은 불길하고 우울하게 전개될 뿐이다.

금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희곡 모두 전통적 가부장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느라 억압한 욕망으로 인해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인간을 표상한다.

〈표 3〉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 유형 ㉑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

나명선 마루턱을 내려온다. 파리하게 여윈 얼굴이 사뭇 불안에 띈다.

명선 : (중얼거리며) 빌어먹을-. 오랜만에 벼랑길 좀 거닐었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어쩔 수가 있어야지. <...>

피아노 소리 느린 강타(強打).

명선 : (그 소리에 언뜻 눈을 치킨다) 박선생이지?

영 : 네.

명선 : (시선을 떨어뜨리고 자기 생각에 잠긴다) 아아 무덤구나.

영 : 글썽요. (손에 잡아보고) 전복 껍데기 아네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명선 : 너희들은 몰라. 그저 조개 껍질이거나 그렇게만 생각할거야. 모서리가 반질반질 손 때 묻은 거라든가 가생이에 구멍이 뚫린 거라든가 아무두 그 물건의 숨은 역사를 모를 거야.

명선 : 무엇이? 어린애라구? 그래, 너에게두 어린애란 말여? 백년 이백년전 선조별 되는 옷어른들이-? 네가 그럼 공중에서나 땅속에서 불쑥 생겨났단 말이나? 되지못하게 스리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깨물개지 말란 말이야. 선조들의 피어린 창업정신을 낮추 평가하면 못써. 허지만 좋아. 너희들은 이미 내버려진 미아(迷兒)들이니까. 올테도 갈테도 없는 가없는 미아들-.

명선 :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아아 너희들마저 제멋대로구나. 내 말이 먼 산에 개짚는 소리만 도 못한 모양이지? 좋아, 난 모든 일에 실패만을 거듭한 사람야. 너희들에게 남겨놓을 업적이라곤 하나 없는 놈야. 허지만 난 아직 너희들만한테까지 끌려살 사람은 아냐! 내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내 자식새끼들을 내 뜻대로 키우는건 내 권리자 내 조상에 대한 나의 의무야. 좋아, 좋구 말구...(후들후들 떨면서 집으로 사라진다)

<표 3>에서 명선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한 전통세대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유구한 역사를 운운하며 모서리가 반질반질하거나 구멍이 뚫린 하찮은 조개껍데기에도 피어린 창업정신이 있음을 훈계한다. 그리고는 신세대인 아들 옥과 딸 영을 ‘미아’라고 연민하며 자식새끼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전통적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운다. 그러나 기존체제를 꺾듯이 유지하기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명선은 늙고 힘이 없다. 이런 모습은 건장한 체력을 가진 자식들과 대비를 이루며 오히려 명선을 초라하고 궁색하게 만든다. 더구나 명선은 딸의 가정교사로 와있는 연옥이 두드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무더위까지 느낀다. 더위로 인해 진땀이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처럼 가부장의 역할로 억압해 놓은 명선의 섹슈얼리티가 분출하는 것이다. 이때 명선이 할 수 있는 건 가부장의 권위와 한 여인에 대한 욕망 사이에 피투(被投)된 상태로 불안에 떠는 일 뿐이다.

〈표 4〉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 유형 ④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

무경 : (현순의 품에 살짝 안기며) 이사해요. 이번 제사 끝나는대로-.

현순 : (의아해서) 그 무슨 소리요? 지금 당신 입으로 저 다리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아버지 말씀을 하지 않았오. 우린 쓰나 다나 아버지 뜻대로 여기서 살 팔자인가 봐.

현순 : (대답을 피하느라고 무경의 옷으로 눈을 옮긴다. 무경의 소매 없는 붉은색 부라우스를 본다.) 당신, 또 이 옷 입었군, 입지 말라고 했는데...

무경 : 날이 더운걸.

현순 : 마당으로 들어온다. 해군 작업복 쓰봉에 위는 별거벗었다.

현순 : 광두 지붕을 고쳐야겠어.

무경 : 아, 그 태고(太古)적 색동버섯이 식물원 같은 광 말예요?

현순 : (안 들린 듯) 뭐라고 했오?

무경 : 당신은 곰팡내를 좋아하는 옛날 성주(城主) 같다고요.

현순 : 너 요즘 행실이 지나친 것 같더라. (나무라는 투) 아버지 낫을 봐서 그런...

현순 : 그만 뒤요. 이젠 진절머리가 나오.

현순 : 그래...? (놀란다)

현순 : 이집 또 아버지, (코웃음) 내게 기분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마 이 이상 더 이집에 있다가는 기어코 미치고 말거야.

현순 : (변색이 되며) 미쳐난다고...? (창밖만 내다보는 무경을 쳐다보고 다시 침중(沈重)하게) 네 아주머니도 그와 똑 같은 얘기를 했다. 바로 오늘-.

무경 : 고양이 등을 쓰다듬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에 무관심한 태도

현순 : (저르기 우울하여) 하는 수 없지. 어차피 나는 이집에서 아버지처럼 살다 죽을 팔자니까.

현순 : (주저하다가) 새집에 가면 당신이 여기서 보다 충실해질까?

무경 : 말하자면, 웅이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죠?

현순 : (속이 들여다보인 듯)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새집에 가선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

현순 : (불안에 떨며) 당신, 뭐 탄 생각 하는 거 아냐?

무경 : 아뇨, 아뇨. (부정하듯) 무엇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표 4>에서 현순은 가장으로서 곰팡내를 좋아하는 옛날의 성주같이 기존의 가치관에 억압당한 인물이다. 소매 없는 붉은 블라우스를 입은

무경이나 바지만 입은 채 윗도리를 벗어 던진 현웅이 관능미를 한껏 뽐내는 반면 현순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에서 아버지처럼 살다 죽을 팔자라며 우울해한다. 그는 무경과 현웅의 애정 관계를 알면서도 남편 으로서나 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애써 모른 척한다. 상황과 대면하지 못하고 예들려 무경이 입은 블라우스에 입을 대거나 현웅에게 행실이 지나치다며 핀잔을 하며 부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무경과 현웅이 순응하지 않자 말을 얼버무리거나 설득하기를 포기하는 나약함만 드러낼 뿐이다. 아내와 동생의 관계가 도를 넘어선다는 의심이 커지자 현순은 아내에게 집을 떠나면 자신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지를 불안하게 묻는다. 현순의 질문이 불안한 이유는 집, 아내, 동생, 심지어 자기 자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기존체제가 무너지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라고 믿은 가부장의 권위가 해체되고 말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러 선택지 중에서 아내에게 새출발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에게 내재된 섹슈얼리티의 분출 결과다. 명선과 마찬가지로 현순 역시 전통적 가치관과 욕망 사이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으며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마침내 기존의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한 상태에서 자아를 상실한 채 실존에 대한 갈등에 놓인 인물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한 신세대와 대결하게 된다.

〈표 5〉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인물간의 갈등 ②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

욱 : 한때 감정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잘 몰랐습니다. 우는 애기 달래듯 또닥거리는 건 아니겠지요? 차라리 없는 애정이라면 없는대로 털어놔 주세요. 사실 말이지 연옥선 지나치게 공리적이예요. 열 손가락을 새삼 꼽아봐야 열 개라구 그러실거예요.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 주세요. 전 정말 질식할 것 같습니다.

연옥 : 실상은 제 쪽이 몇 갑절 더할지도 몰라요. 어데로 갈 것인지 가야할 방향조차 모르구 있으니까요. 어쩌면 저러는 여잔 주관알처럼 튕기는 대로 굴러다니는 여잔지도 모르죠. 널을 기약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욱 : 난 지금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돌아간 어머니 그림자가 눈앞을 스쳐가는 순간 박선생 그림자가 그 월 꺾 덮어 줬어. 아주 선명한 그림자야.

영 : 온 세상에 접잡지 못한 공상을... 딸하구 부부지간이 되구 애인끼리 모자지간이 되구 그제 무슨 그런 공상이 있어요?

욱 : 짜장 그렇다면 어떡할 셈이나?

영 : 그렇다면- 그대로 안두죠. 아버지한테 따지고 들테니까.

연옥 : 옥이씨, 제 애길 진정으루 들어주세요. 빈정거리는 말이 아네요. 전 옥이씨...(말을 푹 낮추어) 진정으루 사랑하고 있어요. 진정이에요.

욱 : 네-? (다가와서 외락 끌어안는다) 연옥씨- 지금 말씀이 거짓이 아니죠? 본심에서 나온 말씀이겠죠?

연옥 : 네, 본심에서-. <...> (두 사람 뜨거운 포옹)

이때 나명선 현관을 나오다가 이 모양을 보고 주춤 멎어선다.

명선 :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누구에게 애원이나 하듯) 날 좀 가게 해 줘. 해필 그 고장에서 - 내 갈길을 막지 말아줘-. (휘청거리며 도루 사라진다)

명선 : 난.. 그 귀중한 유산을... (고개를 푹 숙으려뜨리며) 깨뜨려버리고 말았소. 산산히 흔적도 없이... 아니 내 손으로 깨뜨려 버린 건지, 나 아닌 다른 것이 깨뜨려 준건지 나도 모르겠소. 이제 내 앞에 남은 거라곤 성실 대신에 추방과 조소와 비굴뿐이라고 슬픈 일이요...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요. (등을 꾸부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썬다)

연옥 : 용서해 주세요. 저로써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 배은망덕한 여자예요.

명선 : 상심 마오. 난 내길을 걸어왔을 따름이니까- 미안하오만 날 잠깐 이 자리에 홀로 쉬게해줄 수 없겠소? 정말 쉬어야겠오. 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오.

연옥 : 자신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어졌어요. 아아- (얼굴을 싸고 집으로 사라진다) <...>

영 : 여기두 안계시네. <...>

욱 : 자, 울고 있을 때가 아냐. 어서 찾아 봐야지-

영, 옥 : 아버지- <...>

연옥 : (들었던 트렁크를 떨어뜨리며) 어데로 가야한단 말인가? 모르겠어. 가야할 곳을 난 모르겠어-

<표 5>에서 보듯 명선과 연옥의 관계는 옥이 유학 갔다가 방학 동안

귀국하면서 변화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한다. 옥은 연옥이 명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옥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고, 연옥은 명선과 옥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불륜에 빠지게 된다. 보체는 옥에게 연옥이 사랑을 고백하던 때 명선은 이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절망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가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실존이 좌절되는 순간 명선은 전통세대에도 신세대에도 포섭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추방된다. 명선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벼랑에서 추락하는 것뿐이다.

옥과 영은 아버지와 연옥의 애정 관계에 대해 점잖지 못한 공상으로 치부하며 허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이들 역시 억압된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인물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기는커녕 망상으로 여김으로써 사랑을 윤리·도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옥은 아버지와 연옥의 관계를 알면서도 사랑을 획득하고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옥과 연옥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명선이 벼랑에서 추락하는 동안 옥과 영은 사라진 아버지를 걱정하며 찾아 헤매야 하는, 가족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공포를 맞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연옥은 명선의 집에서 가정부이자 피아노 교사로, 명선의 아내이자 영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전후사회에서 파편화된 가족을 위해 아내 또는 어머니가 부재한 자리를 메우는 것이다. 그래서 옥에게 연서를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마치 그의 어머니처럼 미래의 꿈을 위해 떠나라고 한다. 그러나 연옥이 내면에서 꿈틀대는 것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이다. 어머니로서의 모성애의 발현은 사회의 강제에 의해 주입된 가치일 뿐이다.²³⁾ 하지만 옥이라는 건장한 남성과의 사랑을 통해 자아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연옥의 욕망

은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이라는 외적 권위에 의존한 셈이므로 물거품 일 뿐이다. 더욱이 연옥의 선택은 아버지와 아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욕망이며, 따라서 전통적 가부장의 권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연옥이 갈 곳이란 있을 수 없다. 정체성을 상실한 연옥은 명선과 옥 사이에서 스스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자학하며 떠나고 만다.

<표 6>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인물간의 갈등 ④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

무경 : (속삭이듯) 형한테 들리면 어떻게 할려구 이래요.
 현웅 : 흥, 형한테 흠박 반했더군.
 무경 : 질투야요?
 현웅 : 칸나의 여왕님. 당신은 형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애인인 것을 잊지 말아요.
 무경 : 아-. (숨이 막힌다)
 현웅 : 내 앞에서 형을 ‘여보’하고 부르면 알지? (주먹을 쥐어 보인다) <...>
 무경 : 오호호- (녹을 듯 웃어댄다) 이 분별없는 야심가. (다시 웃음- 숨이 턱에 찬다)
 현웅 : 무더운 태양열 밑에 두 몸뚱이가 새까맣게 불타버릴 때,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것이 내 주장이야.

.....
 모두 노인의 사진에 시선을 옮긴다. 무경 이상한 충격을 받은 듯 얼굴에 변화가 나타난다.
 온 몸에 완강한 강박(強迫)을 당하는 것 같이. <...>
 무경 : (창백한 얼굴로) 그 인형 좀 집어 주세요?
 현순 : ... (말 없이 화장대에 놓인 유리인형을 집어 건넨다)
 무경 : (가슴에 안으면서) 아, 보호자. <...>
 현웅 : 아버지 유물인가요?
 무경 : 그래요. 임종하실 때 주신 거예요.

.....
 현순 : 여보 정말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말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23) 헌신적인 모성, 자애로운 여성,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대체하는 전도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전쟁의 폐허로 인한 집단적인 보상 심리가 헌신의 이데올로기로 재생산된 결과이다.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p.51.

당신의 애정을 원하는 사람ियो. 그래서 당신과 현웅이 사이가 보통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한 것이요.

무경 : (역시 마음이 언짢다) 알아요. (사이- 구토가 나는 모양인지, 손으로 입을 막는다) 나도 당신을 멀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을 떠나서 온전히 살 것 같지 않으니깐요. <...>

무경 : 당신은 이런 내 심경을 모르실거야요. 저 음악소릴 들으면, 나는 얼마나 침체되었나 하는 괴로운 의식에 온 몸에 곱팡이가 스러왔은 것 같아 소름이 끼쳐요. <...>

현순 : 당신은 무엇인가 부족감을 느끼는 것 같애.

무경 : 부족감이 아네요. 여성의 권리를 빼앗긴데 고민하는 거야요.

무경 : (맥이 빠지는듯 현웅의 품에 안기며, 정감(情感)적으로) 응이, 안 떠나겠다고 약속해요. 떠나면 안되지.

현웅 : (피하며) 만약 떠난다면...?

무경 : 안돼요. 그럴 순 없어요. (열열하게) 나를 여자로... 진정한 여자로... 바위 밑에서 사칠 햇빛을 모르고 자라는 풀잎 같은 내 마음에 온통 강열한 남성을 느끼게 한 것은 응이었잖아.

현웅 삼을 높이 들어 그대로 강타. 나무토막처럼 자빠지는 현순. 현웅 삼을 떨어뜨리고 사색이 된 무경을 이윽히 바라본다.

현웅 : (눈에 광기가 돈다) 이리 와요. <...> 옷 벗어. (한발 육박하며) 형 앞에서 한 번 해보잔 말야. <...>

현웅 : 왜 못 벗는거야. 예-. (한걸음 더 진박) 날 떠나지 말라고 했잖어. (달려 들어 부라우스를 잡아 찢는다. 어깨와 가슴 일부분이 노출) 벗어. <...>

현웅 : 좋아, 내가 벗길테야. (하며 숨처럼 늘어진 무경의 몸을 안아다 침대위에 던진다) 처음부터 모험이었어. 나는 이 모험이 좋아. (난폭하게 무경의 위에 덮인다)

침대 밑으로 한 팔을 축 늘어뜨린 무경. 라이트 희미하게 암영을 그린다.

현웅 : 이리와. <중략> 도망가, 무경이. (잡아 끈다.)

무경 : (뿌리치며) 안되지. 이 햇빛보다 더 무서운 결박을 몰라요. (이 말은 신비한 반향으로 ECHO되어 번진다.) <...>

떨어진 인형 다리위로 굴러간다. 무경 정신없이 집으려 다리를 밟는다.

<표 6>을 보면 <심연의 다리>는 <벼랑에 선 집>보다 패륜적인 애정 행각이 벌어진다. 현순은 현웅과 무경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경의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한 인물이다. 아버지 세대가 그랬듯 가정을 꾸리면 무경과 가족공동체의 역할에 맞춰 부부

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현웅이 장남인 현순의 권위를 부정하며 도전하려 든다. 현웅은 방문 밖에 현순이 있음에도 형수인 무경에게 성적 욕망을 표출하며 현순을 농락한다. 섹슈얼리티의 충돌로 가족공동체가 균열하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현순은 무경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만, 극중인물들 사이에 얽힌 욕망이 충돌하자 현순은 현웅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질투에 눈이 먼 현웅은 현순을 살해한 뒤 시신 앞에서 무경과 정사를 벌이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기존체제를 붕괴하는 그들의 애정행각은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개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 저편으로 도망가려던 현웅과 무경은 다리에서 추락하여 심연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건 바로 현순의 아버지가 무경에게 물려준 유리인형이다. 굴러가는 유리인형을 집으려던 무경과 함께 현웅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지며 이들은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한편 무경은 신경증을 앓고 있는데, 현순과의 결혼 후 죽은 시아버지의 영정사진과 그의 유물인 유리인형에게 강박당한 채 여성의 권리를 빼앗긴 자신을 인식하며 괴로워한다.²⁴⁾ 바위 밑에서 사철의 햇빛을 모르고 자란 풀잎처럼 여성상에 억압된 삶에서 도망치려던 무경은 남성성이 물씬 풍기는 현웅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강력한 남성 현웅에게 의존하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파국을 맞게 된다. 이는 스스로 본질을 결정해 나가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무경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남성과의 관계에 기댐으로써 타자의 감

24) 여기서 신경증은 육체적 병리나 도덕적 타락의 증거가 아니라 부적절하게 길들여진 무의식의 증거이자 해결되지 않은 욕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게일 후스, 『섹슈얼리티와 사회』, 임인숙 역, 일신사, 2005, p.112.

육에 간혀 사물화된 결과다. 결국 현순을 살해한 현웅이 죽은 형 앞에서 무경에게 몸을 요구하는 순간 무경은 축 늘어뜨린 채 자신을 포기하며 무기력하게 복종하고 만다.

이렇게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대결은 비극으로 종결된다. 강력한 부권제를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온 세계는 강력한 힘을 드러내며 실존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인간존재를 사회구조에서 기필코 제거하고 마는 것이다.

〈표 7〉 결말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
1) 명선 : 벼랑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짐	1) 현순 : 현웅에게 살해당함
2) 육, 영 :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해뎌	2) 현웅 : 실족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짐
3) 연옥 : 갈 데를 알 수 없어 고뇌함	3) 무경 : 다리가 무너져 휩쓸려 떨어짐

〈표 7〉에서 보듯 두 희곡의 모든 인물은 실존적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끝내 전통적 가족주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자아정체성의 해체 및 생명의 소멸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이러한 귀결은 전후세대 극작가들의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실존하려는 개인의 욕망이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불륜으로 기형화되는 전후사회의 현실을 가족공동체로 축약하여 성토했고자 하였던 것이다.

두 희곡의 극중인물들은 실존적 갈등을 겪지만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패배하고 마는 자아상을 상징한다.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사회체제에 의해 희생되는 현실, 개인의 자아실현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여야만 하는 현실, 특히 여성에게는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돌보는 역할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 그와 반하는 가

치관은 국가권력이 주입한 자기 검열을 통하여 통제되고, 구속되며, 억압되고 만다. 그리하여 두 희곡의 결말은 사회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실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점철된다. 이런 절망을 극명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광인(狂人)이다.

〈표 8〉 광인 A.

김상민의 <벼랑에 선 집>

연옥 : 미친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나타났군요. 머리에 꽃우루 단장하구 언제나 새하얀 옷을 걸치고는 저렇게 피리를 불면서 바닷길 돌아다닌다니요.

옥 : 그 무슨 전설 같은데...

연옥 : 뜬소문으로는 온 가족을 바다에 잃고 나서 저리 됐거나 봐요.

미친여인 : 영감-

옥 :

미친여인 : 나요... 나... 나 모루?

옥 : 에이 재수 없게스리- 저리 가지 못해!

미친여인 : 영감- 내 얼굴 좀 봐주. 내 머리엔 바다에서 보내준 꽃관을 썼구 내 손톱엔 진주알을 갈아서 짜낸 빨간 물감을 칠했다우. 나 영감 손을 좀 빌려구 이래.

옥 : 가! 어서 썩-

미친여인 : 영감-

명선 : (절끔 뒤를 돌아다 본다. 그 순간 전광이 번쩍인다)

미친여인 : 영감- 나 영감 손 잠깐 빌려구 찾아온거라우. 영감이면 넉넉히 하고도 남을 거야.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나 영감이 좋아. <...>

미친여인 : 저걸 따달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뻗어내리는 저 불줄기를... 난 저 불이 딱 싫어서 그래...

명선 : 어떡하면 딸수가 있지?

미친여인 : 올라가야 한다우. 먼곳이 아냐. 저 벼랑 서늘까지면 돼. 그러면 꼬리라두 잡을수가 있을 거야.

명선 : 벼랑서늘에? (일순 생(生)의 집착(執着)이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고요히 눈을 내리감고 여인의 손을 나뻐다가 입술을 댄다) 그러게... 잡아주구 말구...

〈표 8〉을 보면 광인은 가족을 상실한 채 전설같이 떠돈다. 미친여인

이 불현듯 나타나 극중인물에게 손을 빌릴 때 신세대인 육은 미친여인을 재수없다고 밀어내며 거부하지만,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명선은 자신 또한 이 미친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동질감으로 그녀의 손을 잡음으로써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신세대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대로 삶을 운영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지만, 그들이 나이를 먹고 기성세대가 되면 여태껏 스스로 선택해왔다고 여겼던 것들이 기존체제의 존속을 위한 것이 되었음을 깨닫고 마는 것이다. 뒤늦게라도 하늘에서 뺏은 불줄기를 욕망하며 자아정체성을 고뇌하지만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광인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 사회구조의 존속을 위해 소모된 채 피투(被投)된 전후 인간존재의 단면이다.

〈표 9〉 광인 B.

오학영의 <심연의 다리>

여자 : (실신한 사람 같다. 천천히 다리 앞에 서서) 건너지 마시오? 흥, 이 다리야말로 건널 수 없는 심연의 다리인가? (입을 비죽이며 도로 나간다)

여자 : (중얼거리듯) 주의, 건너지 마시오. (암시(暗示)하는양) 이 다리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의 다리인가? (코웃음치고, 무료한 걸음으로 돌아 나간다.)

<표 9>에서 여자는 다리가 있음에도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무용성에 조소한다. 건너지 말라는 것은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한정된 인간의 선택의 범위를 뜻한다. 그러나 실존에 대한 갈등은 이편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편에 대한 갈망은 커진다. 저편에 가면 기존체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를 해방할 자유가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인간 본연의 욕망을 드러내어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인간은 해방은커녕 파멸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절망을 이미 맞본 자는 광인으로서 존재한다. 광인은 기존체제에서 실존이 해체되고 소멸되어 버린 인간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간을 지향하고 욕망하는 순간 광인으로 낙인찍혀 추방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사람들은 대개 공통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²⁵⁾ <벼랑에 선 집>과 <심연의 다리>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소재와 주제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은 당시 전후세대가 가졌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들이 보기에 전후 사회의 상황은 전통적인 가부장의 권위주의와 범람하는 미국 문화의 양립 아래 지배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사회가 분열하고 가족 구조가 파편화되었으며 인간존재가 소외되었다. 그런데도 사회는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권력 체제의 존속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전후세대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간존재가 전후의 혼돈과 폐허 상황에 피투(被投)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이들은 기존 문인과 같이 노골적인 반공에만 치우치기보다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고뇌와 함께 인간의 자유와 소외 문제를 탐구하였다.²⁶⁾ 여태껏 자기 아닌 존재에 구애되어 타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인간존재는 무엇보다 먼저 붕괴된 자아의 의미를 재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²⁷⁾

25) 김학재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p.192.

26) 김리안, 앞의 논문, p.34.

27) 이어령, 앞의 책, p.272.

그래서 ‘전통단절’을 선언하고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구하기 위한 ‘길찾기’²⁸⁾으로써의 창작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때 전후세대가 사용한 소재인 ‘섹슈얼리티’는 자아정체성의 핵심적 요소다. 성이란 인간존재의 필수조건이며 우리 삶의 도처에 존재하는 데²⁹⁾, 이와 관련한 욕망이 분출할 때 불륜으로 기형화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사는 인간에게 자유란 허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인간의 근원적 감정인 사랑조차도 선과 악으로 이분화되고 가족의 위계에 의해 재단된다면 개인에게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족 부정’은 무화(無化) 작용을 통한 자기 창조 의 실존행위로 해석할 만하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자신을 초월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존재이며,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기획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죽는 날까지 자유를 찾아 자기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³⁰⁾다. 그런데 전후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인 금기를 깨고 섹슈얼리티를 통해 실존을 욕망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자기 해방을 꿈꾸는 순간 인간 무의식의 자기 검열 시스템이 가동되고 갈등이 증폭되며 생명이 소멸하는 비극을 맞게 될 뿐이다. 설혹 기존의 가치체계에 순응하며 살았더라도 실존이 해체된 상태인 광인으로 남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순응이든 저항이든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인간존재에게 자아정체성을 실현하기 일은 어렵다.

28) 역사적으로 살폈을 때 근대의 기획은 ‘전통’ 부정의 방식을 취하며, ‘아비’ 부정을 통해 ‘정치적 고아’로서의 근대적 주체들이 고난과 방해물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찾기의 개척의식이 반영된다. 권명아, 앞의 책, p.23.

29) 김재기, 앞의 책, pp.46.

30)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왕사영 역, 청아출판사, 1998, p.9.

기존체제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이란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고 자아정체성이란 사회 안에서 수용되는 성격이 아니라면 희생되고 미는 현실을 바라보며 전후세대 극작가들은 실존적 갈등을 겪는 일 자체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주제의식을 작품에 투영하였다. 그래서 극중 인물들을 둘러싼 전경은 우울할 수밖에 없으며 그곳의 삶은 벼랑에 서 있거나 심연으로 가라앉을 만큼 위태롭기만 하다. 그러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후세대는 전통단절을 선언하고 불안과 공포를 선택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선고받은 인간의 주체성인 것이다. 따라서 두 희곡은 자아정체성이란 외부 권위로부터 규정되거나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기투(企投)하여 자기 본질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실존의식을 의도적으로 좌절시킴으로써 전후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항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게일 후스, 『섹슈얼리티와 사회』, 임인숙 역, 일신사, 2005.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출판부, 2004.
- 김리안, 『1950년대 오학영 희곡의 실존의식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국어교육학과, 2017.
- 김옥란, 「1950년대 희곡에 나타난 전후세대의 현실인식 - 가족해체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pp.23-53.
- 김재기, 『철학, 섹슈얼리티에 말을 건네다』, 향연, 2014.
- 김학재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 1950년대』, 창비, 2016.
- 박명진, 「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 오학영과 장용학의 희곡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9집, 우리문학회, 2013, pp.279-316.
-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왕사영 역, 청아출판사, 1998.
- 송기정, 「광기 소유욕 섹슈얼리티」, 『성과 젠더 그리고 문학』, 호영, 2000, pp.63-98.
- 이어령, 『저항의 문학』, 기린원, 1986.
-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 조셉 브리스투우, 『섹슈얼리티』, 이연정·공선희 역, 한나래, 2000.
- 홍창수, 「전후세대 애정 소재 희곡의 반윤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 제10집, 한국연극학회, 1998, pp.47-69.

Abstract

Post-war Drama and Conflict over Existence

- Based on the sexuality shown in Kim Sang-min's <The House on the Cliff>
and Oh Hak-young's <A Bridge of Abyss> -

Kim, Lee-an

Human dignity comes from the freedom of the body. In particular, 'sexuality' is the source of self-identity and a key factor in making humans human.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the Lee Seung-man regime suppressed ideology and sexiness under the guise of national reconstruction to maintain its long-term government. As a result, human existence was divided into good and evil according to anti-communist ideology, and sexuality was judged based on traditional familism. However, th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U.S. polit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has created contradictions that encourage human inner desires.

The post-war generation rebelled against the reality that alienated humans by coexisting with the value system of the past and the material god even though their lives and communities had been ruined by the war of ideology. And they secretly explored the identity of human existence to live a free life in its original nature.

At this time, sexiness works as a way of self-liberation, so it becomes an important subject for exploring the identity of human existence. Kim Sang-min's drama, <The House on the Cliff> (*Hyeondae Literature*, 1958.12) and Oh Hak-young's <A Bridge of Abyss> (*Hyeondae Literature*, 1959.10.), dramatized sexual deviations against the oppressive reality that even the fundamental desire for love must be carried out ethically and morally within universal social norms. Based on the two play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tage background containing the

existential consciousness of the post-war generation and the sexual conflict of the characters in the play. This aims to focus on the reality of the time when the conflict over existence was frustrated by infidelity and to understand the zeitgeist of the postwar generation.

Key Words : existentialism, post-war generation, sexuality, adultery, self-liberation

김리안

소속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leeani@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04월 30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